

연중 제24주일

제 1 독서 : 출애32, 7-11. 13-14

제 2 독서 : 1디모 1, 12-17

복 음 : 루가 15, 1-32

순정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가 15, 21).

강론

“하느님의 자비”

김의철 신부 / 군중교구청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에 접어들 때면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네 인심도 후해지는 것 같다. 이때 쬐이면 잊지 못할 유년의 추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개구장이 시절, 남의 집 담벼락에 길게 늘어진 빨간 자두 열매는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아직 채 익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고 군침이 들었는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땅거미가 지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잠잠해져 갈 무렵, 사주 경계를 봐가면서 돌맹이를 던져 자두를 따기 시작했다.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조준을 해서 던져도 잘 맞지 않았다. 돌맹이 떨어지는 소리만 유난히 커 마치고 쿵쾅거리는 큰 북소리와도 같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어느 샌가 주인 아저씨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게 아닌가! 그때처럼 무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적은 없었다. 간은 콩알만 해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는 나에게 꿀밤을 한대 먹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떨어져 있는 자두를 주워 내 손에 꼭 집어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뒤권 장독대로 가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다. 철없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아저씨의 용서와 자비를 생각하고서 말이다. 이 사건 이후로 서서히 철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간의 잘못에 대해 따끔한 책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용서와 자비는 체적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사도 바오로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느님의 자비를 깊게 체험하고부터이다. 오늘 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미 잘못을 용서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의 체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다. 신앙인의 벽찬 감격과 기쁨은 하느님의 무량하신 대자대비를 체험하는데 있는 것이다.

소리

“殺身成醫”

얼마 전 서울대 의대 한 의학자가 암과 싸우다가 숨져 가면서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고 안구는 빛을 잃었던 한 생명에게 장기 이식 광명을 되찾게 했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눈시울을 붉힌 일이 있다. 기초 의학인 해부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는 자기 생명이 희생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쓰도록 했다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發膚受之父母) 사상과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예를 다해 모셔야 한다는 인습에 젖어 있는 우리로선 좀처럼 할 수 없는 의로운 용기다.

특히 그동안 장기 이식을 위한 유해 기증이 없지 않았고 모두 숭고한 것이지만 사후 유족들에 의해 결정된 것인데 반해 그는 죽기 전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고통까지도 외면하기 일췌인 썩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에 밝은 빛을 밝힌 감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했다.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신 것이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들께 오늘을 있도록 해준대 대해 하루 종일 감사하며 생각해야 할 추석절 연휴기간이다. 오늘을 있게 해준 조상들께 감사하고 후손들께 존경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농민들의 땀을 생각, 검소한 생활을 하자. **☞**

순정이 산책



“노아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하였다” (창세기 7장)

노아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모든 일을 다 끝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너는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라는 표현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다른 식구들이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기 전 7일을 유예 기간으로 주신다. 홍수는 임박해 있으나 서두를 것은 없다. 7은 완전한 숫자로 홍수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셨음을 뜻한다.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이 은혜로운 날이 지난, 주간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구성을 보면 아내와 세 아들과 그들의 며느리로 되어 있다. 이로써 노아의 가문은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게 될 때 근친상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창세기 5장 32절에 의하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의 나이가 50세였으니 홍수가 님을 때 그의 아들들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충분히 아들을 가질 수 있었을터인데 가족의 구성원 중에 손자가 끼여 있다는 말은 없다. 이것은 홍수가 끝난 후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16절의 “노아가 들어가자 야훼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표현은 물난리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과 생물의 보존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쇄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는 손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다운 사랑을 엿볼 수 있다. 40일 동안 궁창 위의 물이 쏟아졌다는 보고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천되었음을 말한다.

40일 동안 쏟아진 폭우는 온 세상을 모두 잠기게 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는데 점차 불어난 물은 하늘 높이 치솟은 산까지 삼켜버렸다.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물은 모든 생명체를 죽음에 몰아가고 땅 위에 코로 숨쉬며 살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말았다. 오직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대로 건조된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대홍수의 와중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협조하는 노아의 성실한 모습이다. 창세기 저자들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는 표현을 네 번 씩이나 반복한다(6, 21; 7, 5; 9; 16). 노아의 순종적인 태도는 아담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새하늘과 새땅은 노아처럼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차지인 것이다.

명승카인테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리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 75-2270~1
호출기 012-684-0107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전주 가구점

최고급 나전칠기 장농·화장대
고급 쇼파·침대
맹 문 희(데레사)
박 병 주(베드로)
전주시 인후동 농고 정문 앞
☎ 84-3984

양미나 피아노 교습소

음대 대학원 졸업
철저한 음악이론 및 개인지도
양 미 나(로사)
관동로 현대자동차 맞은편
☎ 82-2230·83-5194

5분교리 19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어머니’는 고향과 같은 영원한 그리움의 존재일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하느님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만약 그야말로 하느님답게(?) 슈퍼맨과도 같이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죄를 빼고 난 모든 인간조건을 다 취하시고자 했다. 인간 예수가 되시기 위해 인간 어머니가 필요했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으셨지만 예수는 동시에 하느님이시기도 하기에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란 칭호를 마땅히 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 우리 주교님의 어머니를 가르켜 아들 이병호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주교님의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머니가 처음부터 아들을 주교로 낳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아들의 신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머니도 덩달아 주교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 해서 마리아도 하느님이란 뜻은 아니다. 우리 본당신부님의 어머니, 주교님의 어머니에게 신부님, 주교님의 품위에 맞갖은 예우를 드리듯이 그와 같은 존경과 사랑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들 신부를 둔 어버이들의 심경을 들어보면 항상 살얼음을 딛고 있는 것 같다고들 하신다. 성모님도 그러하셨다. 잉태의 순간부터 칼날 같은 의문 부호가 항상 따라 다녔다. 아들 예수의 그 모든 쓰라린 운명이 그대로 성모님의 생애를 엮었다.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생애가 결코 복되고 영광스럽게만 드러나지는 않았다. 진정 그분의 위대하심이 있다면 잉태의 순간부터 아들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참으로 뜻모를 신앙의 어둔밤을 걸으신 신앙의 여인이라는 점이다. 성모님께 드린 ‘하느님의 어머니’란 칭호는 3세기의 교부 성히벨리투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 참고 자료 : 마리아의 책 · 구세주의 어머니(책)

요십이 (997)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①판매기간 : 8월20일-10월20일
②규격 : 8kg당 1박스
③가격 : 특 20,000원,대 17,000원
 중 14,000원,소 8,000원
④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교육청 신고 2564호
우리 한문 교실
어린이 한자, 사자소학,
천자문, 명심보감 등
효자동 서원국교 후문 사거리
문혜영(파비올라)
☎ 224-5907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 · 숙녀화
아동화 · 특수화] 총판매장
김문식(베드로)
풍남문 ↔ 송악국 사거리
중간

교구 소식

※ 어머니를 위한 영화 상영 : 9월2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1층 소강당,
제목- 두 개의 십자가, 회비-1,000원.

1.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들을 위한 기도회 : 9월14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2. 교구 법원 : 9월14일(월) 오후4시 교구청.
 3.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9월14일(월) 오후7시 홍보국.
 4. 중·고 교재 연수 : 9월19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9월20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6.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9월14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 축! 영명 : 13일(성요한 크리소스도모) 오성기 신부님.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9월20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물 아낌

육조에 물을 채웠을 때는 가족이 샤워는 될 수 있으면 5분 이내에 끝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절약을 이룹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 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엑스포 커튼
브라인드 · 커튼
김정기(플로리아니오)
소미자(디나)
영등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태화 아채 효소 전북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판통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박정열 치과의원
원장 박정열
김선자(베로니카)
경원동 동문 사거리
(민자당사 옆)
☎ 231-420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읍시다!

1. 제대회원명 명단: 회장-정영례(테레사) 부회장-김순희(안젤라) 서기-서성남(모니카) 회계-오윤자(안젤라)
2. 가정방문: 오후2시부터, 15일-오후1반, 16일-인후2반, 17일-인후3반, 18일-인후4반.
3. 주일학교교리 개학: 19일, 교리(오후3시) 미사(오후4시)
4. 6월영세자 첫 고해성사: 20일 오후3시.
5. 모임: ①꾸리아(오늘 후2시) ②여성연합(15일 어머니미사 후) ③대전회(20일 10시미사 후)
6. 교부금납부에 관심바랍니다.
7. 금주침소: 중노5,6반 차주침소: 중노7,8반.

*** 복지**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성지순례: 27일 오전7시 출발. 장소-베티성지. 오늘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주일 오전9시-수녀님반.
3. 성시간: 17일 저녁 11:30분.
4.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7일 오전10시) ⑤성우회(20일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조옥례,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김종근씨 가족, 차주전례: 유복규, 독서-강익구씨 부부, 봉헌-나유순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67,610원 □ 교부금: 938,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1. 성가정회: 15일(화) 저녁미사 후, 2. 장년회: 19일(토) 저녁미사 후.
3.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서강의: 매주 목 저녁미사 후 많은 참여바랍니다.
5.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3,150,000. 봉헌총액-1,828만원. 열심한 기도과 많은 관심바랍니다.
6. 성서읽기: 역대상 14장~29장 7. 금주침소: 모든 성인의 모후 Pr.
8.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박시도 ②이석남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유순천 ②김미남 봉헌-한동욱, 황옥섭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제24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

1. 회의: ①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성심회-오늘 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다음주 목요일 오후8시.
3. 알림: ①미사시간변경-오늘(9월13일)부터 새벽미사 새벽6시, 저녁미사 저녁7시로 각각 변경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②예비자 종합교리: 9월15일(화)~9월18일(금)오후7시(전원참석) ③영세식-9월20일(일)영세자 대부분은 당일 오전9시30분까지(시간엄수바랍니다) ④첫 영성체 교리반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5시입니다. ⑤봉성체-다음주 수요일(9월23일)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본당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행사내용은 용머리 까지 참조바랍니다)

1. 사목회: 18일(금) 저녁8시.
2. 첫 영성체 및 어린이 영세식: 19일 3시 미사 중. 성인 영세식: 19일 저녁8시.
3. 청소년사: 4구역 4반, 5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9월은 순교자 성월.

1. 금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2시) ③사목회(후8시)
2. 영세자 집중교리: 15일~18일 저녁8시.
3. 성모회: 16일(수) 오전11시.
4. 구역반장회의: 17일(목) 오전11시.
5. 유아세례: 19일(토) 오후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6. 차주: ①영세식(공식미사 중) ②바느의 성모 꾸리아(오후2시)
7. 전국 울뜨레아: 9월27일, 참가희망자 사무실에 접수바람.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본당의 날** (9월): 20일 전10시30분 완산여상 뒀산 운동장. 청팀-1,2,3,4,7,10,12구역, 백팀-5,6,8,9,11,13,14,15 구역. 성 정분호(밭도로메오)주보 선포 1주년 기념일 입니다.
2. 전일신자 환영 합니다: 인사소개 13일 공식미사에 함께.
3. 전국 울뜨레아: 27일 전5시 출발. 서울 울림퓌 공원에서.
4. 교도소 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4일 전10시30분 센터3층.
5. 중·고 교재 연수: 9월 후2시, 가톨릭센터.
6. 회의: 청년회-13일 후8시, 성모회-16일 어머니미사 후.
7. 구내가족 추석휴가: 14일~15일.
8. 93년도 월력 광고 신청: 27일까지 선착순 접수 바람.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5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16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A), 비사별.
3.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예비자 교리반 신청: 예비자를 인도하시어 사무실에 신청해주시시오.
5. 알림: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6.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김춘민, 이광승.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오경애, 전만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희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오늘은 연중제24주일입니다.

1. 모임안내: ①울뜨레아-오늘 오전12시. ②자모회-16일(수) 오전10시30분.
 ※ 첫감판대: 금년 김장철을 돕기위해 양질의 깻감을 공급하고자 하오니 효자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여성 구역분과)
 ※ 무공해고추: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1근-7500) 공급일차(20일) 공식미사 후.
2. 미사안내: 금주-다위담, 계약의 궤. 차주-바다의 별, 매피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4(월) 10시 ③자모, 성심, 성모회-18(금) 10시미사 후.
2. 성지순례: 27(일) 장소-해미 각반회장님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가정방문: 16(수) 오후2시 태백, 18(금) 오후2시 부지개.
 금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고영표 ②이병희, 봉헌안내-이재진 부부, 이태연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함용준 ②조신욱, 봉헌안내-송수환 부부, 김성택 부부.